



2014년 10월 27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량분석 | 안 혁 ☎ 3276-6272
파생/ETF | 강송철 ☎ 3276-6181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저성장, 저금리, 그리고 배당주

• 계량분석

2014년 예상 순이익 전월 대비 2.3% 하향

• 이머징마켓 동향

기업실적 발표에 따라 주요 이머징 혼조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에스원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강원랜드 외 5개 종목

• 기업분석

CJ CGV, POSCO, 고려아연, 기아차, 대림산업, 삼성물산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17(금)	10/20(월)	10/21(화)	10/22(수)	10/23(목)	10/24(금)	
유가 증권	종합주가지수	1,900.66	1,930.06	1,915.28	1,936.97	1,931.65	1,925.69	
	등락폭	-18.17	29.40	-14.78	21.69	-5.32	-5.96	
	등락종목	상승(상한)	358(5)	557(10)	344(7)	562(6)	398(7)	258(3)
		하락(하한)	466(2)	256(1)	465(4)	259(2)	415(0)	565(3)
	ADR	76.48	80.33	76.62	81.44	83.39	78.43	
	이격도	10 일	97.84	99.59	99.10	100.41	100.31	100.08
		20 일	95.67	97.44	97.03	98.38	98.36	98.33
	투자심리	20	30	30	30	30	30	
	거래량	(백만 주)	362	345	406	399	373	392
	거래대금	(십억 원)	4,650	3,614	4,371	4,413	4,410	4,256
코스 닥	코스닥지수	547.70	556.01	557.54	564.52	564.31	560.66	
	등락폭	2.21	8.31	1.53	6.98	-0.21	-3.65	
	등락종목	상승(상한)	358(13)	557(11)	344(8)	562(11)	398(9)	368(10)
		하락(하한)	466(3)	256(0)	465(5)	259(1)	415(5)	588(5)
	ADR	75.59	78.53	76.30	79.86	81.50	78.25	
	이격도	10 일	98.89	100.64	101.07	102.31	102.32	101.57
		20 일	96.98	98.64	99.12	100.47	100.54	100.06
	투자심리	20	30	30	30	30	30	
	거래량	(백만 주)	395	374	417	385	376	382
	거래대금	(십억 원)	2,640	2,304	2,549	2,657	2,480	2,38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189.1	1,012.6	1,027.6	263.5	141.6	270.9	55.6	22.1	274.021	52.7
	매도	2,072.6	1,093.4	1,063.7	210.8	135.0	293.8	99.0	23.6	301.4	52.3
	순매수	116.5	-80.8	-36.1	52.7	6.6	-22.9	-43.5	-1.5	-27.4	0.4
	10 월 누계	629.8	-2,701.1	1,869.3	794.3	156.8	848.5	68.0	-179.8	181.4	202.0
	14 년 누계	356.4	4,800.0	-3,928.7	-2,379.3	734.8	-2,206.9	-461.3	-2,179.6	2,563.5	-1,227.7
코스닥	매수	2,146.8	108.1	131.6	30.0	15.1	45.3	8.8	5.6	26.9	19.9
	매도	2,123.9	138.3	128.4	30.9	13.8	29.9	18.9	2.4	32.4	15.9
	순매수	23.0	-30.2	3.3	-1.0	1.3	15.4	-10.1	3.2	-5.6	4.0
	10 월 누계	-133.9	-105.0	280.9	-20.8	55.2	195.1	65.0	10.1	-23.7	-41.9
	14 년 누계	200.4	664.1	152.2	-29.4	199.5	-87.9	-15.4	-27.8	118.2	-1,016.8

저성장, 저금리, 그리고 배당주

2014년 Target KOSPI	2,070pt
12MF PER	9.73배
12MF PBR	0.93배
Yield Gap	8.1%P

- ▶ 바닥은 확인. 그러나 여전히 시장의 핵심은 배당
- ▶ 채권 같은 주식 : 정부의 의지, 늘어나는 수요
- ▶ 투자전략 : 11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국고채 금리 전구간 작년 저점 하회

바닥은 확인. 그러나 반등의
 성격은 경기둔화와 저금리,
 그리고 배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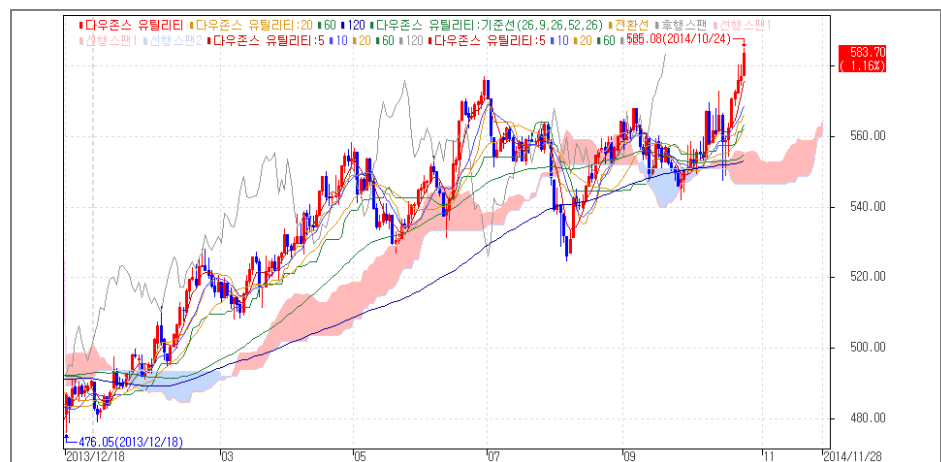
■ 바닥은 확인. 그러나 여전히 시장의 핵심은 배당

결자해지(結者解之)라 했던가. 주말 미국시장은 또 한 번 강한 상승을 보였다.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적인 발언이 관찰되면서 시장은 안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29일(수) FOMC 결과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연준이 시장의 공포를 감지한 상황에서 과감하게 매파적으로 행동하긴 어렵다고 본다.

한국시장은 LG화학, 제일기획 등 대형주 어닝쇼크가 지속되면서 반등 탄력이 여전히 부진하나 지수 바닥은 일단 확인했다고 본다. 특히 현대차가 지난 주 실적발표 자리에서 ‘앞으로 배당을 큰 폭 확대하고 내년부터 중간 배당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전 부지 고가 인수 논란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던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주주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반등의 성격은 여전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프라이싱하는 형태가 아니라, 경기둔화로 인해 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작년 7월처럼 소재, 산업재 등 경기민감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신 필자는 지속 배당주를 강조하고 있다. 배당 수익률이 4%에 육박하는 다우존스 유틸리티 지수는 지난 주 직전 고점을 경신하였다.

[그림 1] 다우존스 유틸리티 지수 직전 고점 돌파



자료: 한국투자증권

■ 채권 같은 주식 : 정부의 의지, 늘어나는 수요

시행령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고 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정 증권 등의 보유 목적이 해당 법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를 말한다.¹

11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연기금 배당 주주권 행사 가능하도록

지난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을 11월 중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연기금 수익률이 높아져 국민 전체가 혜택을 입고 주식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간 연기금의 배당 주주권 행사를 제약해 왔던 장애물은 소위 '5% 룰'이라고 알려진 공시 규정이었다. 우리나라에선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지분 변동 사항이 생기면 금융당국에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의 경우 전문 투자자로 분류해 3개월에 한 번씩만 공시하도록 간소화하였다. 그런데 만약 특정 증권의 보유 목적이 해당 법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면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공시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연기금의 '배당에 대한 요구'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연기금과 같은 거대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공시하게 되면 투자 전략이 노출되고 추종 매매가 득세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최경환 부총리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현 경제팀의 정책핵심이 여전히 '배당'에 맞추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 단순 시가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KT&G, 기업은행, 강원랜드 등) 이외에도 ▲ 향후 배당정책이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종목(현대차, KB금융)과 ▲ 일부 우선주에 대한 긍정적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

이번 주 중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거래세 인하가 제외되었다는 소식에 시장은 벌써부터 실망하는 기색이다. 그러나 시장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경제팀과 금융위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미리 체념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비과세는 기재부 반대로 어려워졌다는 것이 정설이나 소득공제 장기펀드 세제혜택 등 여타 보조적인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83호, 2014.1.28., 일부개정] 중 연기금의 배당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만 일부 발췌

시행령 개정에는 통상 빠르면 4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융위는 아직 연기금의 배당 주주권 행사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라간다면,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2015년부터일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는 것만으로도 투자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표〉 시행령 개정 절차 : 약 4~7개월 소요

입법과정	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약 30~60 일
부패영향평가	약 15~30 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약 30~60 일
입법예고	약 40~60 일
규제심사	약 15~20 일
법제처 심사	약 20~30 일
차관회의 심의	약 7~10 일
국무회의 심의	약 5 일
대통령 재가	약 7~10 일
공포	약 3~4 일

자료: 법제처

27일 거래소 새 배당지수 산출 개시

특히 오늘(27일)부터 거래소가 산출을 개시하는 새 배당지수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당사의 파생/ETF 전략을 담당하는 강송철 위원은 ‘새로 발표된 고배당 지수의 경우 배당수익률이 3~4% 대여서 기존 KODI와는 확실히 차별화된다. 흥행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배당주의 인기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². 실제로 최근 일반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것과 달리, 배당 펀드로는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공모 주식형 배당 펀드 설정액은 연초 2.5조원에서 10월 17일 4.7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일반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연초 32조원에서 27조원으로 감소했다.

[그림 2] 배당 주식형 펀드는 자금 유입 vs. 공모 주식형 펀드는 자금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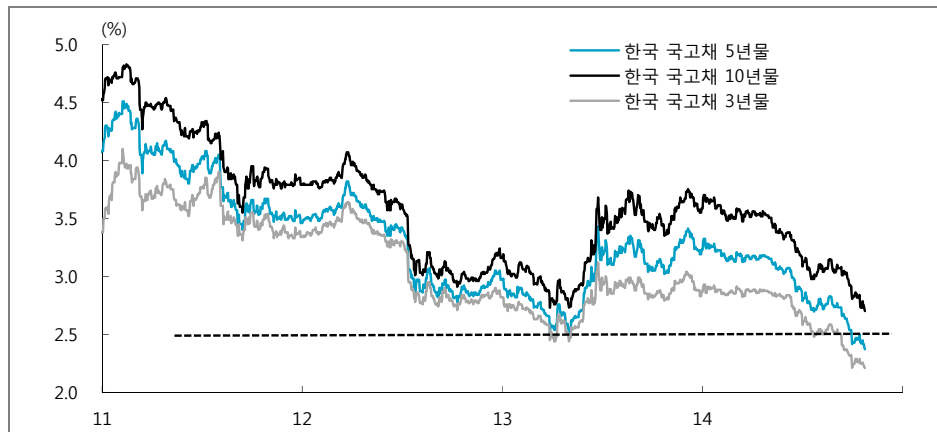
자료: 펀드닥터, 한국투자증권

² 자세한 10월 21일 발간된 강송철, “거래소 새 배당지수, 개요와 SPOT 아이디어” 참조

한국 국고채 금리 전 구간에 걸쳐 작년 저점 경신

아울러 지난 주 한국 국고채 금리가 전 구간에 걸쳐 작년 저점을 경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차 양적완화가 곧 종료되지만 저성장, 저금리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강해지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9월 이후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대부분의 배당주들이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놓고 보면 여전히 채권 같은 주식과 배당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현대차우, SK 이노베이션우 등 일부 우선주들이 보통주보다 먼저 가격탄력을 회복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그림 3] 한국 국고채 금리 : 전 구간에 걸쳐 작년 저점을 경신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KOSPI 고배당 지수 편입 종목 (총 50개)

Code	종목	비중	Code	종목	비중
A130660	한전산업	3.00%	A024110	기업은행	1.60%
A021960	케이비캐피탈	2.00%	A033780	KT&G	2.50%
A000080	하이트진로	3.00%	A010950	S-Oil	1.50%
A078930	GS	2.00%	A004380	삼익 THK	2.40%
A009580	무림 P&P	3.00%	A018880	한라비스테온공조	1.40%
A005810	풍산홀딩스	2.00%	A001630	종근당홀딩스	2.40%
A003460	유화증권	3.00%	A000320	노루홀딩스	1.30%
A096770	SK 이노베이션	1.90%	A058850	KTcs	2.40%
A002960	한국셀석유	2.90%	A001450	현대해상	1.20%
A023000	삼원강재	1.90%	A005010	휴스틸	2.30%
A071320	지역난방공사	2.90%	A075180	새론오토모티브	1.20%
A019440	세아특수강	1.80%	A042700	한미반도체	2.30%
A117580	대성에너지	2.80%	A024090	디씨엠	1.20%
A015890	태경산업	1.80%	A003000	부광약품	2.20%
A017670	SK 텔레콤	2.80%	A014680	한솔케미칼	1.20%
A006370	대구백화점	1.70%	A029530	신도리코	2.20%
A078000	텔코웨어	2.70%	A002550	LIG 손해보험	1.10%
A092440	기신정기	1.70%	A001430	세아베스틸	2.10%
A008060	대덕전자	2.70%	A016580	환인제약	1.10%
A090350	노루페인트	1.70%	A019680	대교	2.10%
A000480	조선내화	2.60%	A119650	KC 코트렐	0.90%
A000060	메리츠화재	1.70%	A069260	휴켄스	2.10%
A100250	진양홀딩스	2.50%	A009240	한샘	0.50%
A035250	강원랜드	1.60%	A008560	메리츠증권	2.00%
A008730	울촌화학	2.50%	A005940	우리투자증권	0.40%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비중은 KRX 방법론을 이용해 추정

〈표〉 이번 주 주요 일정

27(월)	28(화)	29(수)	30(목)	31(금)
독일> 9월 소매판매 MoM(~31일) (n/a, n/a, 1.5%) 美> 9월 미결주택매매 MoM (n/a, 1.0%, -1.0%) 실적발표 美 머크, 암젠, 트위터 韓 S-Oil, LG유플러스	美> 9월 내구재 주문 (n/a, 0.4%, -18.4%) 10월 소비자가대지수 (n/a, 87.2, 86.0) 유럽> EC 경제 전망 발표 실적발표 美 페이스북, 일렉트로닉 아츠, T-모바일, 코닝, 듀폰, 노블 에너지, 화이자, 월플, 애너다코석유, US스틸, 버텍스제약 韓 두산, SK, SK이노베이션	韓> 9월 경상수지 (n/a, n/a, 72.74억불) 日> 9월 예비 광공업생산 MoM (n/a, 2.1%, -1.9%) 美> FOMC 금리결정 10월 연준 QE3 속도 (n/a, 0, 150억불) 실적발표 美 길리어드, 메리어트, 허쉬, 칼라일, 서던, 메트라이프, 맥쿼리, 드림웍스, 비자, 굿이어타이어 韓 SK텔레콤, 한국타이어, OCI, LG전자, LG이노텍, 신한금융지주	韓> 9월 광공업생산 MoM (n/a, 2.2%, -3.8%) 美> 엘런 연준의장 연설 3Q 예비 GDP 연간화 (n/a, 3.0%, 4.6%) 유럽> 10월 최종 소비자기대지수 (n/a, n/a, -11.1) 실적발표 美 크래프트, 켈로그, 스타벅스, MGM, 마스터카드, 링크드인, 익스페디아, 그루폰 韓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한진해운, LG상사, SK네트웍스, 기업은행, 우리금융, 포스코, 네이버	日> 일본중앙은행 본원통화목표 (n/a, n/a, 270조엔) 10월 소비자물가지수 (n/a, 3.3%, 3.3%) 美> 10월 시카고 구매지수 (n/a, 61.0, 60.5) 10월 최종 미시간심리지수 (n/a, 86.4, 86.4) 실적발표 美 웨스턴유니온, 엑스모빌, 매디슨스퀘어가든, 힐튼, 위즈덤트리 韓 삼성카드,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SK브로드밴드, KT, 현대제철

정리: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1 : 전주 동향 및 기업실적 추정치 변경

KOSPI는 한 주만에 소폭 반등 마감했다. 그리스 지원 논의 등으로 해외 증시가 반등하면서 외국인 매도 강도가 약화됐고 29일(수) FOMC를 앞두고 관망세에 진입했다. 23일 발표된 중국 10월 HSBC 제조업 PMI 예비치는 전월 50.2에서 50.4로 반등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주보다 8원 하락한 1,057.5원에 마감했고, 국고채 3년물은 전주보다 3bp 하락한 2.21%를 기록했다.

이번 주에는 LG화학(-18.3%), 제일기획(-15.4%) 등 어닝쇼크로 직격탄 맞은 대형주들이 많았다. 반면 LG생활건강(+14.0%)은 실적 호조와 CNP 차액박 인수 기대로 급등 마감했고, SK C&C(+10.4%), 코웨이(+15.2%) 등 기존 주도주들 역시 강세를 재개했다. 현대차(+6.5%)는 실적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17만원대로 반등했고, KB금융(+4.2%)은 내부출신 인사가 차기 회장에 선임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주는 하드웨어(고영), 보험(코리안리, 삼성화재, 동양생명), 음식료/담배(KT&G, 무학) 등의 실적 추정치 향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조선(현대미포조선), 운송(아시아나항공) 등은 EPS 일제 하향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업종별 주간 EPS 변화를 및 등락률 변화

Name	수익률 (%)			12MF EPS CHANGE (%)		12MF Valuation (X)	
	1W	1M	YTD	1W	1M	PER	PBR
에너지	1.85	-7.46	-32.99	-3.49	-24.69	9.42	0.57
소재	-1.89	-11.68	-14.88	-1.61	-5.84	10.93	0.72
화학	-7.48	-21.11	-30.32	-3.58	-10.16	10.18	0.78
금속 및 광물	3.63	-0.03	20.25	-0.08	-0.34	12.16	1.29
산업재	-0.51	-8.63	-8.60	-1.81	-8.57	14.81	0.96
자본재	-0.89	-10.58	-13.61	-2.27	-7.97	13.00	0.84
건설	-1.23	-9.35	4.16	-0.13	-1.27	12.22	0.85
조선	-5.09	-22.24	-52.58	-12.18	-49.90	17.63	0.56
상업서비스	0.92	-1.51	11.70	0.00	-0.66	21.96	3.07
운송	1.39	2.27	27.70	4.22	-19.57	31.40	1.90
경기소비재	3.07	-3.20	-2.98	-0.20	-1.29	8.39	1.03
자동차/부품	1.94	-5.58	-15.77	-0.23	-1.45	5.77	0.78
내구소비재/의류	7.22	9.71	81.18	-0.03	0.86	23.95	3.17
소비자 서비스	7.10	-3.42	23.45	0.16	-2.33	19.01	3.16
미디어	0.62	-8.79	-21.05	-0.89	-5.35	14.85	1.62
유통	-0.86	-10.81	-19.93	0.00	-0.57	11.30	0.74
필수소비재	3.42	1.90	22.07	0.02	-0.39	18.54	1.80
음식료/담배	1.79	-0.74	24.46	0.04	-0.41	17.89	1.64
생활용품	14.45	20.55	11.31	-0.13	-0.37	23.94	4.90
의료	3.79	8.95	20.53	-0.44	-1.20	19.53	1.76
제약/바이오	3.77	8.93	20.67	-0.44	-1.20	19.53	1.76
금융	0.36	-5.98	-0.22	-0.10	-0.50	10.47	0.73
은행	-0.07	-8.69	-5.79	0.05	-1.05	8.59	0.59
기타금융	0.73	-0.33	-1.71	0.00	0.00	10.16	0.75
증권	3.09	-4.32	21.92	0.14	3.48	14.43	0.81
보험	-0.12	-1.15	0.93	-0.34	-0.12	12.62	1.00
IT	-0.14	-4.48	-11.62	0.00	-5.98	9.46	1.11
소프트웨어	2.05	-2.48	7.25	0.04	-0.16	28.24	5.26
하드웨어	1.47	-15.17	-31.68	4.52	3.81	15.47	0.94
반도체	-1.37	-3.69	-14.84	-0.10	-7.05	8.01	0.99
디스플레이	5.98	-2.26	20.68	1.45	16.16	9.69	0.95
통신서비스	-3.41	-12.52	8.70	0.91	3.64	12.17	1.10
유틸리티	-2.35	1.93	23.52	-0.22	1.11	6.27	0.60

주 : MKF500 업종 분류 기준, 전주 목요일 증가 기준 업데이트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2 : 주간 글로벌 업종별 등락을 상위/하위

지난 주 Bloomberg World Index 69개 업종 중 상승률 상위를 기록한 업종은 바이오(+7.57%), 항공(+6.40%), 트럭/리스(+6.08%), 레저(+5.30%), 그리고 인터넷(+5.13%) 등이었고, 상승률 하락 업종은 조선(-2.09%), 석탄(-0.95%), 음료(-0.19%), 광산(+0.33%), 그리고 철강(+0.78%) 등이었다.

연초 상승장구하던 바이오 업종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엘런 의장의 고평가 지적 이후 급락하였으나 최근 재차 큰 폭 반등하였다. 피셔 부의장 등 연준 인사들이 저금리 기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이 크게 기여했다. 연초 대비 상승률도 25.8%로 비교 그룹 중 가장 높다. 항공과 트럭/리스 업종도 유가 약세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하락 업종의 대부분은 시클리컬 업종이 차지했다. 특히 10월 중국 HSBC 제조업 PMI 예비치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4중전회에서 별다른 경기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았고, 유럽 경기 둔화로 인해 수요 부진이 예상되면서 조선 업종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가 약세가 지속되면서 석탄 업종 역시 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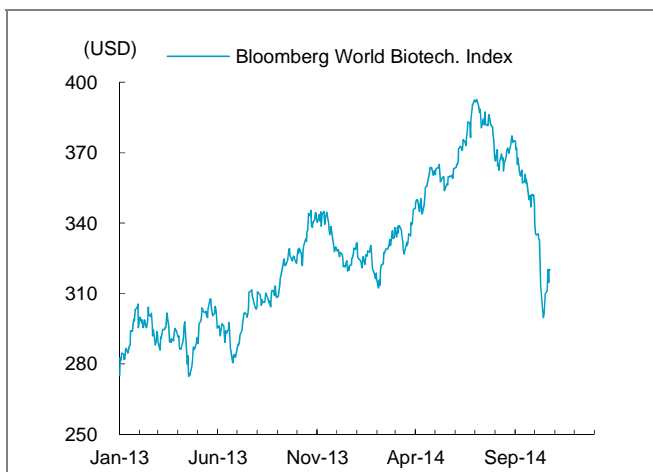
방어 업종에 속한 음료 업종도 약세를 보였다. 업종 내 대장주인 코카콜라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이다. 코카콜라의 3분기 순이익은 21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코카콜라는 이에 따라 2017년까지 20억 달러를 줄이는 등 2019년까지 30억 달러의 재정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표〉 Bloomberg World Index 업종별 전주대비 수익률 상승/하락 상위

상승 상위	수익률 (%)	하락 상위	수익률 (%)
바이오	7.57	조선	-2.09
항공	6.40	석탄	-0.95
트럭/리스	6.08	음료	-0.19
레저	5.30	광산	0.33
인터넷	5.13	철강	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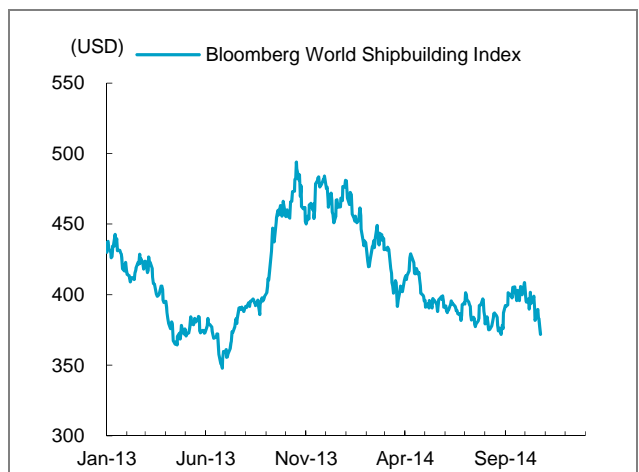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블룸버그 월드 바이오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블룸버그 월드 조선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3 : 주간 글로벌 주식형, 채권형 펀드 유출입

주식형 펀드 중 선진국(International, Pacific)은 2주 연속 순유출 기조가 이어졌고, 신흥국 (Asia ex-Japan, GEM) 역시 3주 연속 순유출 기조가 이어졌다. 다만 한국 펀드군으로는 4주 연속 순유입 기조가 유지되었다. 채권형의 경우 미국/글로벌 채권형 펀드는 순유입 기조가 유지되었고,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는 8주만에 순유입세로 전환했다. 반면, 신흥국 채권펀드는 2주 연속 순유출 기조를 유지했다.

〈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 분	지역	자산규모	한국비중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4년
선진국 투자펀드	International	1,883,048	1.6%	-1,429.2	157	69,341
	Pacific	48,524	6.6%	571.9	762	-1,080
신흥국 투자펀드	Asia ex-Japan	346,710	16.2%	89.7	-556	-432
	Global Emerging	466,556	11.2%	-1,720.3	-6,311	-1,447
	Latin America	34,675	-	375.8	-167	-4,040
	Europe/Middle East/Africa	886,520	-	-136.8	-94	-3,138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표〉 글로벌 채권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별/시장별	자산규모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4
전체 채권 펀드 (미국+신흥국+인터내셔널+하이일드)		3,349,621	10,593	41,817	176,637
신흥국 채권 펀드 (EM bond totals)		257,362	-225	-239	559
	- EM 경화(\$) 채권	108,935	-6	-369	1,486
	- EM 신흥국 통화 채권	103,159	-117	-310	-6,753
	- EM Blend 통화 채권	45,268	-102	440	5,826
인터내셔널 채권 펀드		1,102,609	2,141	11,295	72,634
하이일드형 채권 펀드		463,088	1,635	-4,661	-6,403
미국 채권 펀드 (US bond totals)		1,526,562	7,042	35,422	109,847
	- Municipal	355,846	72	1,353	8,879
	- Floating Rate	110,178	-1,239	-4,163	-7,934
	- Inflation Protected	50,635	-41	-604	-1,172
	- Inter. Term Corp.	21,702	76	391	3,953
	- Inter. Term Funds	353,381	1,978	14,216	27,681
	- Inter. Term Gov.	26,460	437	1,311	1,353
	- LT Bond	5,992	94	53	481
	- LT Corp.	28,675	-39	257	3,328
	- LT Gov.	14,713	194	2,321	5,232
	- MBS	71,936	296	2,759	4,736
	- ST Bond	205,531	206	1,840	18,101
	- ST Corp.	32,157	-72	1,094	3,952
	- ST Gov.	41,356	2,991	5,155	4,723
	- Total Return	207,999	2,089	9,440	36,535
기타 채권 펀드 (Other bond totals)		4,401,331	19,247	43,023	36,238
	- MMF 채권펀드	3,643,734	19,756	40,455	-7,069
	- Balanced Funds	757,597	-509	2,568	43,307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2014년 예상 순이익 전월 대비 2.3% 하향

■ 외환 관련 손실 여파로 2014년 예상 순이익 하향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당사 유니버스 종목의 2014년 예상 순이익은 79.4조원으로 전월 대비 2.3% 하향됐다. 이익 하향의 대부분은 운송, 철강/비철금속, 건설업종 등에서 비롯됐는데 전체 하향 폭의 41% 가량을 점한 운송과 철강/비철금속 업종은 외환 관련 손실의 영향이 컸다.

■ 음식료/담배, 디스플레이 업종 순이익 상향

10월에는 음식료/담배업종의 2014년 예상이익이 KT&G의 세금인상 관련 가수요 증가 및 환율 전망치 상승에 따른 외화 관련 평가의 반영으로 9.0% 상향됐다. 아이폰6, 6+용 패널 공급 증가로 LG디스플레이의 4분기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디스플레이 업종의 예상 순이익도 8.9% 높아졌다.

한편 운송업종은 3분기 중 외화환산손실 및 S-Oil 주식 매각손실이 반영된 대한항공의 적자 폭이 대폭 확대되며 예상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전자부품업종은 삼성 SDI의 IT용 2차전지, ESS, 케미컬 부문에서의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 악화로 예상 순이익이 17.1% 하향됐다. 건설업종은 대림산업의 사우디 법인 영업손실 반영, 철강/비철금속 업종은 POSCO의 외화관련 손실 반영으로 2014 예상 순이익이 각각 15.2%, 10.8% 낮아졌다.

■ 12개월 예상 PER 9.7배, PBR 0.93배

2014년 10월 24일 종가(KOSPI 1,925.69) 기준 12개월 예상 PER은 9.7배, 12개월 예상 PBR은 0.93배다.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2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기업실적 발표에 따라 주요 이머징 혼조세

- ▶ 상해종합지수는 9월 부동산지표 부진, 후강통정책 시행 불확실성에 약보합으로 마감
- ▶ 홍콩H지수 0.5% 하락,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은행, 자동차 업종 약세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차익매물 출회하며 0.6% 하락
- ▶ VN지수는 0.3% 하락, 기업실적 부진, 환율 상승, 차익매물 출회로 보험, 부동산 등 약세

상해종합 보험 마감
건설자재, 금융신탁, 보험,
증권 등 업종 약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보험권에서 거래를 마치며 2,300선을 지켜냈다. 보험세로 출발후 장 중 등락이 반복되는 혼조흐름이 나타났다. 거래대금은 1,143억위안으로 전날대비 250억위안 가까이 축소됐다. 금일 발표된 9월 부동산가격 지표가 부진한 추세를 계속해 경기우려가 지속됐다. 기존에 27일로 예상했던 후강통 시행시기가 발표되지 않은 것도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다만 해외증시의 패닉심리가 완화됐던 가운데 2,300선에서 강한 지지선이 형성되며 지수가 결국 보험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업종별로는 건설자재(-2.4%), 금융신탁(-1.9%), 보험(-0.7%), 증권(-0.7%), 석유(-0.6%), 통신설비(-0.6%), 비철금속(-0.4%), 요식업(-0.4%), 석탄(-0.3%), 음식료(-0.3%), 은행(-0.2%) 등이 약세였다. 반면에 출판(2.1%), 수상운수(1.9%), 농림목어(1.7%), 영화방송(1.4%), 채굴서비스(1.1%), 여행(0.85), 의료서비스(0.7%), 의류(0.6%), 부동산(0.5%), 철강(0.4%) 등이 상승 마감했다.

홍콩H 0.5% 하락
석탄, 제약, 은행, 철도,
전력, 보험 등 업종 하락

■ 홍콩 시장

홍콩H지수가 0.5% 하락해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고용지표 및 10월 독일 제조업 PMI지수, 소비자신뢰지수 등 경제지표들이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돼 글로벌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 그러나 후강통 시행 지연에 대한 우려와 장성자동차, 건설은행 등의 실적이 부진해 지수를 약세로 이끌었다. 건설은행 3분기 순익 증가율이 7.8%로 둔화돼 4대 국유은행주가 모두 약세를 기록했다. 장성자동차의 3분기 실적도 전년동기비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가가 5% 가까이 빠졌고 동풍차, 광주차 등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석탄, 제약, 은행, 철도, 전력, 보험 등 업종들도 모두 하락했다.

자카르타종합지수 소폭 반락
소비재, 은행, 통신, 설비기
계 등 관련 종목 약세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는 사흘 만에 약세로 전환하며 0.6% 하락했다. 하락 출발한 이후 장 초반에 상승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약세로 전환하며 하락 폭을 확대했다. 기업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큰 악재였다. 주요 기업들의 분기 순익이 감소했다는 소식으로 은행, 설비기계 관련주가 하락했다. 반면 플랜테이션 관련주가 팜오일 가격 강세와 동조하여 상승했다.

■ 베트남 시장

VN지수 0.3% 추가 하락,
보험, 부동산, 가스 등 일부
대형주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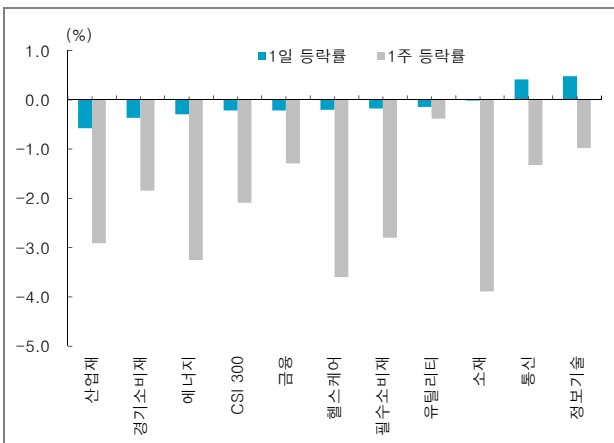
VN지수는 장중 등락을 반복한 끝에 0.3% 하락 마감했다. 동/달러 환율 상승,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일부 기업실적 부진 등이 악재로 작용해 보험, 부동산, 가스, 유제품, 증권 등 일부 대형주가 하락했다. 한편 대형은행의 대출금리 하향조정, 외국인 순매수 규모 확대,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예상 하회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직물, 통신, 운송 등이 상승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9월 신규주택 가격 상승률 YoY -1.1%(8월 0.5%), MoM -1.0%(8월 -1.1%) 재정부, 1~9월 전국 국유기업 세전이익 1.85조위안(YoY 5.9%) 재정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MOU 체결, 2015년말 전에 정식 설립-신화망
베트남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YoY 3.23% (9월 3.62%)
필리핀	중앙은행, 기준금리 기존 4.0% 동결
필리핀	8월 무역수지 -0.17억달러 (7월 -0.41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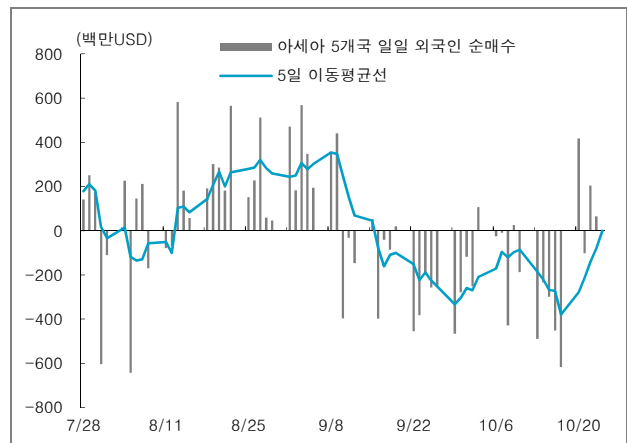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0/24(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302.28	-0.01	-1.66	-2.61	8.80
홍콩 H	10,391.64	-0.45	1.54	0.79	-3.92
중국 차스닥	1,477.59	-0.02	-2.21	-4.11	13.27
인도 SENSEX	26,851.05	0.24	3.28	0.83	26.83
인도네시아 JCI	5,073.07	-0.60	0.88	-1.26	18.69
태국 SET	1,536.64	0.26	0.69	-3.09	18.32
베트남 VN	591.51	-0.34	1.06	-1.22	17.22
MSCI 이머징마켓	981.75	-0.54	0.51	-2.35	-2.09

주: 24일 오후 6시 2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의 매도세로 양지수 모두 이를 연속 하락 마감

- 미국증시는 캐터필러 등 대형주의 실적 호조 및 미국, 독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상승 마감. 1,940P선을 회복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상승폭을 반납하며 하락반전,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되며 장중 1,920P선이 무너졌으나, 개인의 매수세로 하락폭을 다소 줄이며 1,925P로 마감. 코스닥은 외국인이 홀로 매도세를 보이며 하락을 주도, 560P로 마감하며 이를 연속 동반 하락.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우려감이 재부각되고 ECB가 유로존 124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됨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자회사 한진드림익스프레스를 흡수합병한다는 소식에 양사의 시너지 기대감에 한진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전체 주식의 3%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소식에 한화생명도 신고가를 기록. 암세포 치료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특허 취득 소식에 나이백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자회사 글로벌케이뷰티가 중국 케이블TV를 통해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에 이필름이 이를 연속 상한가를 기록. 또한, 뉴욕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또다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며 방역, 백신,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1.2% 감소하는 등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제일기획은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LED 가격 하락 및 조명용 LED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감에 LG이노텍을 비롯해 루멘스, 서울반도체 등 LED 관련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종목/테마	내 용
한진(002320) ▶52,800(+3.94%)	한진드림익스프레스 흡수합병 소식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 절감 및 서비스품질 개선 등의 운영효율성을 도모하고 상호역량보완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00% 자회사인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한진드림익스프레스를 흡수합병한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 아울러, 최근 유가 하락 및 연말 연이는 이벤트로 해외직구 및 국내 배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실적 상승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한화생명(088350) ▶7,950(+8.90%)	자사주 취득 소식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부양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체 주식의 3%에 해당하는 2,600만주의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이에 따라 동사의 RBC(위험기준자기자본)는 약 10%p 내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250% 이상은 유지할 것으로 평가됨 - 자사주 취득은 지난 2011년 10월 이후 두번째로, 매입기간은 10월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3개월 간 진행될 예정
나이백(138610) ▶8,340(상한가)	‘암치료 기술’ 특허 취득 소식에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골라 치료하는 펩타이드 기술을 개발, ‘종양선택적 투과기능성을 가지는 펩타이드와 그 용도’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 펩타이드 기술은 항암제에 적용해 투여할 경우 정상조직에는 항암제가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암세포 조직으로만 집중적으로 투과시키는 기능을 해 항암제의 부작용은 감소시키고 암 환자 치료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에볼라바이러스 관련주	뉴욕에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서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미국 뉴욕으로 돌아온 한 의사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여 격리 조치된 후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또다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며 강세 - 오리엔트바이오(002630, 상한가), 진원생명과학(011000, +10.26%), 일양약품(007570, +6.12%), 바이오니아(064550, +4.72%), 유니더스(044480, +4.64%)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애플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및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미국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세 및 현대차, 삼성전자 등 시총상위 종목들이 주가 하락을 주도하며 약세를 보임. 코스피는 주중 1,940P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감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1,925P로 한주를 마감. 코스피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인 코스닥은 560P선을 회복하며 마감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유가증권	IT	유통업	한창	945	63.2	건강관리	유통업	신흥	9,990	16.8
	IT	서비스업	SK C&C	265,000	10.4	건강관리	의약품	녹십자	143,500	4.4
	소재	종이목재	아세아제지	30,300	15.2	필수소비재	화학	LG생활건강	604,000	14.0
	소재	철강금속	동일산업	66,600	6.7	필수소비재	음식료	하이트진로	26,850	9.4
	소재	서비스업	풍산홀딩스	48,400	4.5	필수소비재	음식료	동원F&B	360,000	10.9
	소재	비금속	삼광글라스	72,100	7.8	필수소비재	음식료	샘표식품	43,050	27.6
	소재	서비스업	KPX홀딩스	77,300	5.0	필수소비재	음식료	삼립식품	173,500	21.3
	소재	종이목재	신대양제지	39,800	8.3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방림	22,500	10.0
	소재	철강금속	디씨엠	15,900	9.7	경기소비재	미분류	조광피혁	128,500	4.9
	금융	보험업	한화생명	7,950	11.2	경기소비재	운수장비	S&T모티브	38,600	1.6
	금융	증권	교보증권	13,800	12.2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영원무역홀딩스	117,500	4.4
	산업재	운수창고	천일고속	55,800	13.2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동일방직	95,600	3.6
	산업재	비금속	벽산	7,110	10.7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한섬	34,750	6.1
	산업재	운수창고	한진	52,800	5.8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한세에스24홀딩스	14,500	11.1
	산업재	유통업	한샘	145,000	33.6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한국콜마홀딩스	54,400	13.5
	산업재	서비스업	한미글로벌	8,540	9.5	경기소비재	유통업	영원무역	68,900	5.8
	산업재	비금속	아이에스동서	47,250	4.1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태평양물산	7,030	18.8
	산업재	유통업	일신석재	1,400	8.5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한세실업	41,000	7.5
	산업재	기계	삼익THK	9,730	5.1	경기소비재	전기전자	한국단자	56,800	7.4
	건강관리	의약품	유나이티드제약	13,850	1.1					
코스닥	IT	디지털컨텐츠	플레이워드	6,490	40.8	소재	화학	효성오앤비	26,100	11.1
	IT	디지털컨텐츠	넥슨지티	22,500	21.6	소재	종이목재	대양제지	17,200	21.1
	IT	디지털컨텐츠	바른손이앤에이	2,450	34.6	산업재	소매	에이치에이엠 미디어	3,460	13.4
	IT	기계장비	네오티스	6,100	9.1	산업재	기계장비	화성	5,850	6.4
	IT	IT부품	다원시스	15,450	12.8	산업재	금속	부스타	6,690	2.3
	IT	IT부품	휘닉스소재	1,765	39.5	에너지	전문기술	에너지솔루션	1,860	17.4
	IT	정보기기	이씨에스	5,880	3.2	건강관리	의료정밀기기	아이센스	64,600	6.6
	IT	IT부품	KH바텍	30,850	9.2	건강관리	제약	휴온스	63,900	3.4
	IT	소프트웨어	코나아이	43,300	12.2	건강관리	의료정밀기기	바텍	30,050	12.1
	IT	기계장비	제우스	21,600	9.1	건강관리	의료정밀기기	루트로닉	27,200	27.1
	IT	반도체	테라세미콘	20,000	17.0	건강관리	연구개발	메지온	38,400	13.3
	IT	반도체	ISC	36,700	22.1	필수소비재	제약	나이백	8,340	20.9
	IT	반도체	마이크로컨텍솔	12,350	7.9	필수소비재	음식료담배	진로발효	32,200	11.6
	IT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98,000	15.2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나이스정보통신	30,850	9.2
	IT	반도체	피에스케이	14,650	7.7	경기소비재	화학	바이오랜드	28,250	1.6
	IT	디지털컨텐츠	네오위즈게임즈	22,400	9.3	경기소비재	인터넷	에스24	7,190	11.1
	IT	반도체	심텍	9,070	8.1	경기소비재	도매	CJ프레시웨이	44,000	6.0
	IT	반도체	유니테스트	4,970	3.6	경기소비재	출판매체복제	에듀박스	2,825	9.3
	금융	기타서비스	NICE평가정보	4,530	11.6	경기소비재	기타제조	로만손	21,500	17.2

주) 상기 종목들은 10월 24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단기 유망종목: 에스원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에스원 (012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관리사업 양수와 시스템경비 가입자수 증가, 보안상품 판매 성장으로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예상 - 주력 사업부인 보안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ESCO(Energy Service Company), 헬스케어 등 다양한 신규사업의 확장성을 주목할 필요 - 삼성 에버랜드로부터의 건물사업 양수를 통한 외형 확대와 건물 에너지 관리(Building Energy ManagementSystem: BEMS)사업과의 시너지 기대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3. 12A	1,274	129	79	2,343	31.9
	2014. 12F	1,739	175	119	3,519	22.2
삼성화재 (000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위권 손해보험사들에 비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시현 - 시장 지배력, 규모의 경제, 판매채널 다변화 및 효율성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성장 여력 상존 -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3. 12A	12,179	711	505	9,991	25.9
	2014. 12F	17,570	1,238	870	17,208	16.5

- 편입 제외 종목: 현대백화점(-16.3%), 풍산(-17.8%)은 시세 부진으로 제외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금호타이어 (073240)	10,950 (+4.8)	10,450 (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가격 하락, 수익성 개선, 전환사채 전환과 대우건설 지분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신용등급 개선 추세 지속 예상 - 원재료 투입단가 하락, 가동률 상승, 이자비용 절감 등에 따른 턴어라운드 기대가 유효한 가운데 요코하마 고무와의 제휴에 따른 시너지, 미국 내 중국산 타이어 규제 가능성, 워크아웃 졸업 가능성 등의 이슈들도 주목할 필요
LG화학 (051910)	183,500 (-5.4)	194,000 (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성수기 효과 부재로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함에 따라 실망 매물이 급격히 출회되며 주가가 2011년 이후 이익 감소기의 PER 밴드 하단을 이탈 - 전지사업부문의 이익 증가와 정보전자소재부문의 실적 개선 기대는 여전히 유효 - 2015년 이익 회복, 증설에 따른 원가 경쟁력 강화, 중대형 전지의 성장 가치 등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유한양행 (000100)	192,500 (+5.8)	182,000 (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문의약품은 견고한 성장 유지, 특히 시장 안착에 따른 마케팅 비용 안정화 효과로 이익 개선 예상 - 고성장 지속하고 있는 원료 의약품 수출은 고객사의 미국 허가 관련 상업화 매출 확대 기대, 중장기적으로도 외형/이익 성장은 API 사업이 견인할 것으로 전망
태광 (023160)	14,500 (-7.6)	15,700 (0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발생한 불량제품 보상 문제로 이후 2년간 수주, 생산에 차질을 빚었으나 설비증설 및 내부품질 감독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메인 벤더의 지위를 회복 중 - 2013년 하반기부터 국내 건설사들의 산업설비(정유/화학/발전 플랜트) 수주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2년 수주 모멘텀 예상. 수주 모멘텀과 함께 제품 Mix 개선으로 2분기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세가 재개되는 가운데 수익성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화학, 삼성화재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삼성화재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강원랜드 외 5개 종목

강원랜드 (035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이블과 슬러머신 증설효과, 안정적인 VIP드롭액 성장과 겨울 스키시즌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수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워터월드 착공을 통한 복합리조트 사업 마무리, 현금성 자산을 활용한 성장성 제고 가능성, 실적 안정성과 배당 매력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로 재부각될 가능성 상존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3. 12A	1,361	388	298	1,468	21.1
	2014. 12F	1,495	515	402	1,982	17.7

- 편입 제외 종목: 제일기획(시세부진으로 제외 -15.9%)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4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한국전력 (015760)	46,550 (-5.9)	49,450 (10/14)	58,032	6,333	3,073	4,932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 영업이익이 3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5조 1,044억원, 3조 1,759억원으로 추정. 매출액은 5.9%, 영업이익은 105% 증가 전망 -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아 당분간 요금인상 효과에 따른 매출액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2016년까지 원전이 매년 1기씩 추가되는 등 전력수급여건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전망 				
LG생활건강 (051900)	604,000 (+20.8)	500,000 (08/13)	4,639	517	363	21,759	2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2분기 실적은 개선세로 전환, 장기적인 이익 개선 시그널 확인 - 2분기 역성장률 기록한 음료사업은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며 점진적인 실적 개선 예상 - 실적 부진, M&A 기대감 약화 등과 관련한 추가 선반영 과정은 일단락, 내수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하반기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 				
NAVER (035420)	780,000 (-0.9)	787,000 (06/23)	2,725	791	575	19,289	4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인 가입자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익 모델다변화로 라인 매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서비스와 수익모델 도입이 가능하고 유행에 덜 민감한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라인은 여타 글로벌 SNS업체들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폐쇄형 SNS인 밴드(BAND)도 글로벌 가입자 증가와 모바일 게임 출시로 성장 기대 				
삼성전자 (005930)	1,112,000 (-14.5)	1,301,050 (02/17)	209,159	29,766	25,187	166,768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세 둔화와 함께 업체간 경쟁 격화에도 불구하고, 강한 시장 지배력과 기술 경쟁력, 마케팅 능력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부문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할 때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SK텔레콤 (017670)	265,000 (+16.5)	227,500 (01/15)	17,632	1,904	1,731	24,401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과 마케팅비용은 감소로 수익성 호전 추세 지속 - 무제한 데이터 가입자, 특화 요금제 가입자 증가로 2014년에도 ARPU 증가 예상 - SK브로드밴드와 SK하이닉스 등 자회사 실적 호전, 설비투자 감소로 인한 가용현금흐름(free cash flow)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주주이익 환원 정책 강화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강원랜드, SK텔레콤, 삼성전자, 한국전력, NAVER, LG생활건강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CJ CGV(079160)

매수(유지)

목표가: 68,000원(유지)

종가(10/23): 51,200원

3Q14 Preview: 국내와 중국 모두 좋다

■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40% 증가 전망

CJ CGV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가 예상된다. 실적개선의 주요 요인은 국내 영화관사업의 호조이다. ‘명량’을 비롯한 한국영화의 흥행으로 3분기 직영점 관람객이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10%, 66% 증가(vs. 전국 영화관람객은 각각 3%, 65% 증가)할 전망이다. ATP(Average Ticket Price)도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영화관람료 다양화 정책’의 효과로 전년 대비 6% 증가한 7,372원으로 예상된다. Q(Quantity)와 P(Price)가 동시에 증가하는데 반해 매점원가 및 배급 등의 기타 사업에서의 비용증가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익 개선의 가시성이 높다.

■ 중국사업 영업적자 5억원으로 감소 예상

중국사업(JV+연결자회사)의 3분기 영업적자는 5억원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적자폭이 각각 30억원, 1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1) 2013년 상반기부터 2,3선 도시에 출점한 사이트가 정상화과정을 거치며 이익창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2) 신규사이트 오픈에 따른 초기비용 집행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동사는 지난 7~8월 중국 내 신규사이트를 2개(월말 기준 누적 30개), 9월에 1개(월말 기준 누적 31개)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사이트 프로모션 비용은 출점 한달 이후 본격 집행되기 때문에 3분기에 인식되는 초기비용은 7~8월에 오픈한 2개 사이트에 한해서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 중국 사이트 이익창출 능력 확인 가능할 전망

3분기 실적을 통해 중국사업 이익개선의 가시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 동안, 동사의 중국사업에는 사이트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 대비 출점 사이트의 이익개선이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하지만, 3분기 중국사업 실적개선에서 동사 중국 사이트의 이익창출 능력이 확인될 전망이다. 신규 출점은 지속되었지만 1) 2,3선 도시 중심으로 정상화(출점 후 평균 8분기 이후 흑자전환)되는 사이트의 수가 증가하고, 2) 개별 사이트 당 이익규모 확대도 이어져 2015년 중국사업 영업이익은 34억원(vs. 2014년 94억원 적자 전망)으로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 투자 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68,000원 유지

CJ CGV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68,000원(2015년 EPS에 목표 PER 25배 적용)을 유지한다. 3분기 실적개선과 2015년 중국사업 이익개선 가속화 전망에 주목해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추천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779	55	54	2,626	193.1	111	12.2	7.4	1.9	16.6	1.1
2013A	916	52	13	613	(76.7)	119	71.0	10.3	2.5	3.5	0.8
2014F	1,049	48	26	1,232	101.0	127	41.6	11.6	2.8	6.8	0.7
2015F	1,266	86	55	2,587	109.9	185	19.8	8.2	2.5	13.2	0.7
2016F	1,455	117	76	3,576	38.3	232	14.3	6.6	2.1	16.0	0.7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2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POSCO(005490)

매수(유지)

목표가: 500,000원(유지)

종가(10/23): 321,500원

확인된 사이클 개선

■ What's new : 톤당 영업이익 7.3만원으로 YoY 36.7%, 4분기 연속 상승

3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6,350억원으로 우리 추정치 6,010억원을 5.7%, 컨센서스 6,136억원을 3.5% 상회했다. 연결 영업이익은 8,787억원으로 우리 추정치 8,830억원을 0.5%, 컨센서스 8,864억원을 0.9% 하회했다. 톤당 영업이익은 7.3만원으로 추정치 7.1만원을 3.2%, 출하량은 867.3만톤으로 추정치 847.2만톤을 2.4% 상회했다. 특히 톤당 영업이익은 작년 3분기 5.4만원 대비 36.7% 상승했으며, 4분기 연속으로 향상되고 있다. 한편, 지배지분순이익은 우리 추정치를 34.6% 하회했는데, 이는 1) 예상보다 외화관련손실이 크고, 2) 현대중공업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약 1,00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 Positives : 스프레드 개선, 공급 과잉 완화의 시그널

우리는 철강 공급 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최근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철광석 가격이 오를 때는 제품 가격이 그 보다 못 오르고, 철광석 가격이 하락할 때는 제품 가격이 더 빠져서 톤당 영업이익이 하락했다. 공급 과잉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4년에는 톤당 영업이익이 상승할 전망이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지만 제품 가격이 이 보다 덜 하락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철강 제품의 공급 과잉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 Negatives :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재무구조 개선 노력

POSCO는 권오준 회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회사의 매각, IPO, 그리고 보유 지분 매각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추진 중인 포스코특수강 매각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다. 자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노력보다는 결과를 보기를 원하고 있다. 포스코특수강이 매각 문제가 계속 지체된다면 투자자들의センチメン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 사이클의 변곡점에서 사자, 목표주가 500,000원 유지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500,000원(12개월 forward BPS에 목표 PBR 0.9배 적용)을 유지한다. 우리는 철강산업이 전후방산업과의 수급 구조 개선으로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한다. 원재료에 대한 가격 협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제품의 공급 과잉은 완화될 것이다. 철강산업은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변화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시기이다.

(단위: 십억원, %, %p)

	3Q14P				증감률		2014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5,814	16,270	2.9	15,876	(2.6)	7.4	65,614	64,632
영업이익	883	879	(0.5)	886	4.7	38.9	3,398	3,420
영업이익률	5.6	5.4	(0.2%p)	5.6	0.4%p	1.2%p	5.2	5.3
세전이익	519	331	(36.2)	646	(54.0)	(57.8)	2,192	2,402
순이익	336	238	(29.3)	474	(53.5)	(58.1)	1,413	1,664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2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고려아연(010130)

매수(유지)

목표가: 485,000원(유지)

종가(10/23): 408,000원

아연 가격 상승이 가져온 선물

■ What's new : 연결 영업이익 1,806억원으로 컨센서스 상회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806억원으로 우리 추정치 1,670억원을 8.2%, 컨센서스 1,638억원을 10.3% 상회했다. 별도 영업이익은 1,637억원으로 우리 추정치 1,633억원과 유사했으나 자회사들 영업이익이 예상을 상회했다. 3분기 data 중에 우리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금 생산량이 2.2톤으로 사상 최대치였으며 생산능력을 상회했다는 점이다. 사업 보고서 상 금의 연간 생산능력은 24시간 가동 기준 7톤이므로 분기 최대 생산 가능 물량은 1.8톤이다. 생산능력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Positives : 아연 공급 부족 지속 전망

ILZSG(International Lead and Zinc Study Group)에 따르면 전세계 아연 수급은 2013년에 공급 부족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공급 부족이 확대되고, 201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2014년부터 은 가격보다는 아연 가격에 더 큰 상관 관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연의 공급 부족은 아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고려아연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연 공급 부족은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자동차 생산량 증가로 아연도금강판 생산량은 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아연 생산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Negatives : 아연 가격의 단기 약세

아연 가격이 7월 28일에 연중 최고가인 2,417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9월 이후 가격이 6%나 하락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고려아연의 원가에 적용되는 원/달러 환율은 4~5개월 후행한다. 이를 반영하면 4분기에는 판가에 적용되는 원/달러 환율이 원가에 적용되는 원/달러 환율보다 높게 된다(그림6). 수익성 개선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결론 : 단기보다는 장기로 접근하자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485,000원(2016년 EPS 63,435원에 목표 PER 10배를 적용해 자기자본비용 12%로 할인한 현재가치)을 유지한다. 현재 소재 가격에 대한 우려가 높고, 설비 증설은 아직 1년 3개월이 남았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공급 부족으로 아연 가격이 상승하고 증설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영될 것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주식 매입을 권고한다.

(단위: 십억원, %, %p)

	3Q14P				증감률		2014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249	1,276	2.2	1,199	3.8	8.9	4,938	4,837
영업이익	167	181	8.2	164	20.1	20.0	664	649
영업이익률	13.4	14.1	0.8p	13.7	1.9p	1.3p	13.4	13.4
세전이익	176	184	4.0	170	24.1	10.7	685	668
순이익	133	134	0.9	128	24.2	7.9	503	498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2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기아차(000270)

매수(유지)

목표가: 68,000원(유지)

종가(10/23): 54,300원

4분기 영업이익 성장세로 전환될 전망

■ What's new :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6%에서 5%로 하락

기아차의 3분기 실적이 우리의 추정치를 하회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한 11.4조원으로 우리의 추정치를 5.8% 하회했다. 영업이익은 18.6% 감소한 5,666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6%에서 5%로 하락해 우리의 추정치인 5.6%를 하회했다. 실적이 추정치를 하회한 이유는 미국 인센티브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고 비우호적인 환율 영향 확대 때문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신모델 효과 강화, 환율 상승 및 기저효과로 인해 4분기에 다시 성장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신형 UM Sorento가 8월 중순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신형 Carnival이 판매를 개시했고 중국에서는 8월부터 제3공장에서 K4 세단(D1 세그먼트)이 양산되고 있다. 13년 4분기에는 전년동기 영업이익률이 리테일 판매 부진과 달러대비 원화강세로 5.5%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번 4분기는 기저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 Positives : 중국판매 강세와 배당성향 지속 상향

3분기 국내공장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390,789대였다. 동기간 해외공장 판매는 10.6% 증가한 321,097대를 기록해 총 판매는 13% 증가한 711,886대를 달성했다. 반면 소매판매는 714,349대로 증가율이 낮은 3.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3분기 말 글로벌 재고는 2.5개월로 전년동기 1.7개월 및 전분기 말 2.3개월에서 증가했다. 기아의 3분기 중국 판매대수는 149,034대로 전년동기대비 20.3% 증가했고 K4는 8월 2,095대, 9월 5,000대가 판매됐다. 중국에서 D 세그먼트 시장이 회복 중인 가운데 K4와 동급인 현대차(005380, 매수/TP 25만원)의 MISTRA가 13년 11월 성공적으로 출시됐다(14년 1~9월 누적 96,221대 판매). 기아의 3분기 미국 인센티브는 대당 2,382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2% 증가했는데 산업평균은 동기간 17.4% 증가한 2,955달러였다. 한편 기아도 실적 컨퍼런스를 통해 배당성향을 지속적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혀 긍정적이다.

■ Negatives : 노사불안 10월까지 이어져

동사의 노사불안이 10월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2일 현대가 타결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기아의 국내공장 가동률이 향후 정상화될 전망이다.

■ 결론 : '매수' 유지

'매수'와 목표주가 68,000원(12개월 forward PER 7배, 업종 평균 PER 20% 할인)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3Q14P				증감률		2014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2,119	11,415	(5.8)	11,366	(5.3)	(1.9)	47,807	47,604
영업이익	675	567	(16.0)	638	(26.4)	(18.6)	2,787	2,904
영업이익률	5.6	5.0	(0.6)	5.6	(1.4)	(1.0)	5.8	6.1
세전이익	1,086	853	(21.5)	1,040	(35.4)	(30.4)	4,489	4,629
순이익	847	657	(22.4)	810	(35.8)	(27.2)	3,551	3,628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2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대림산업(000210)

매수(유지)

목표가: 89,000원(하향)

종가(10/23): 65,600원

예상을 크게 하회, 불확실성은 해소

■ What's new : 영업적자 1,890억원 발생, 사우디 법인에 비용 집중

사우디 법인(DSA)의 영업손실 2,550억원으로 1,890억원의 연결 영업적자를 시현했다. 예상을 크게 하회한 이유는 'Isocyanates'에 1,380억원, 'Elastomer' 1,010억원, '라빅 CP 1,2' 760억원 등 총 3,370억원의 추가원가(충당금 1,230억원 포함)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 Positives : 불확실성은 해소하다

작년 4분기 3,200억원의 영업적자 시현 이후 사우디의 추가적인 cost overrun의 불안이 잔존했다. 따라서 예상을 크게 상회한 비용 반영은 차라리 불확실성을 해소의 의미가 있다. 사측은 4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로 1,200억원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현실성을 낮게 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문제 현장 2개의 진행률은 72~77%로 내년 4월 완공이어서 비용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이번 충당금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2) 작년 4분기 2,700억원의 비용을 반영했던 사우디 '쇼아이바' 현장에서는 실제 추가 투입원가 없이 설치 작업이 완료되는 등, 기존에 손실을 반영했던 현장의 추가 투입비용은 없었다.

■ Negatives : 프로젝트의 종료만이 이익 예측성을 높이는 요인

2011~2012년 수주한 사우디 프로젝트 대부분에서 손실이 큰 이유는 당시 낙찰 가격이 낮았다는 근본적인 이유 외에도 단기에 많은 프로젝트가 집중되며 현지 인력 조달 등 리소스 조달에서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이다. 당시 발주된 프로젝트는 대부분 2015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며 그간 EPC업체들이 겪었던 리소스 조달 문제와 그에 따른 비용 리스크는 낮아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당시 수주했던 프로젝트가 거의 예외 없이 손실로 드러나며 오직 해당 현장의 종료만이 이익 가시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남은 사우디 잔고는 총 12억달러에 불과하며 특히 시공법인 DSA에는 약 4억달러만 남은 것으로 파악된다.

■ 결론 : 목표주가 89,000원으로 하향. 그러나 비로소 바닥관점에서 접근 가능해져

2014년 영업이익을 2,610억원에서 510억원으로 하향하며 2015년 영업이익도 기존 대비 11% 하향, 목표주가를 89,000원으로 16% 하향한다. 그러나 비 건설 매출이 전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약 1,800억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제조기반의 회사임에 주목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림산업은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로 판단된다. 중동 내 인도 등 후발주자의 저가 공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맞불을 놓기보다 호텔과 발전 사업 등 꾸준한 운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개발형 EPC 업체로 변모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의 기반은 125%에 불과한 부채비율 등, 강한 재무구조가 되고 있다. 따라서 PBR 0.5배 이하의 현 주가에서는 바닥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단위: 십억원, %, %p)

	3Q14P				증감률		2014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139	2,090	(2.3)	2,439	(16.2)	(13.6)	9,157	9,799
영업이익	45	(189)	NM	83	적전	적전	51	332
영업이익률	2.1	(9.1)	-11.2pt	3.4	-12.6pt	-14.2pt	0.6	3.4
세전이익	75	(206)	NM	94	적전	적전	(25)	342
순이익	54	(170)	NM	68	적전	적전	(20)	245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2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삼성물산(000830)

매수(유지)

목표가: 90,000원(유지)

종가(10/23): 71,800원

새로웠던 시도, 그 성과를 실적으로 증명

■ What's new : 예상을 상회한 영업실적

‘쿠라야’ IPP, 동두천 복합발전 등 주요 발전 플랜트 현장의 준공이 임박하며 매출은 다소 부진했다. 그러나 건설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무려 1.1%p 개선되며 전사 영업이익이 우리의 예상을 14.4% 상회했다. 법인세가 예상보다 600억원 가량 더 부과됐는데 이는 담합 과징금 400억원에 대한 비용 인정을 받지 못했고 온타리오 사업과 호주 로이힐 등 신규 진출한 시장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보수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4분기부터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Positives : 상사의 실적 개선, organizing fee는 지속 가능한 수익원으로 자리잡아

상사의 실적 개선이 눈에 띈다. 500억원의 영업이익 중 280억원은 온타리오 신재생 사업(#2)과 칠레발전 사업의 organizing fee(중개수수료) 유입에 의한 것이다. 이를 제외해도 트레이딩 영업이익은 215억원으로 전기 150억원 대비 개선됐다. 작년 3분기에도 organizing fee가 상사 이익을 견인한 바 있다. 개발역량에 기반한 organizing fee는 이제 일시적 수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수익원으로 전사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Negatives : 신규수주는 양적 부진, 그러나 LNG와 선진시장 진출에 의미

4조원 가량 계약을 대기하고 있는 수주를 확보한 상태지만 3분기말 계약고는 7.9조원으로 부진하다. 그럼에도 양적 수주 부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작년 수주한 로이힐 프로젝트(6조원)의 원활한 수행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나은 시기다. 2) 업계 내 중동 현장의 cost overrun이슈가 반복되고 있으며 인도 업체의 저가 공세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으로 고부가가치 시장과 상품의 공략이 필요한 때다. 삼성물산은 2013년 인수한 LNG 탱크 FEED 업체인 ‘Whessoe’의 track record에 힘입어 최근 영국의 에탄탱크(2.1억달러)를 수주했으며 말레이시아 LNG 탱크(6억달러) 수주도 확보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한 상품과 시장을 LNG와 선진시장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 인수나 글로벌 업체와의 JV등 독특한 마케팅으로 해당 시장에 가장 빨리 진출하고 있다.

■ 결론 : 안정적 실적 성장 외에도 삼성SDS 등 자산가치 부각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던 ‘쿠라야’(지분투자와 함께 EPC 수주), ‘로이힐’(마이닝 업계 최초로 full EPC 방식 제안)등, 2011년부터 새롭게 시도했던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매분기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안정적인 실적 고성장 외에도 곧 예정된 삼성SDS의 IPO로 자산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모주식 비율이 7.9%에 불과한 삼성SDS의 대안 투자로 삼성물산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매수의견과 top pick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3Q14P				증감률		2014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7,347	6,881	(6.3)	7,677	(7.5)	(2.7)	29,275	30,013
영업이익	169	193	14.4	172	33.1	37.5	622	631
영업이익률	2.3	2.8	0.5pt	2.2	0.9pt	0.8pt	2.1	2.1
세전이익	154	168	9.2	170	(8.2)	29.4	701	735
순이익	120	53	(56.1)	123	(57.5)	(34.2)	487	514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2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17(금)	10/20(월)	10/21(화)	10/22(수)	10/23(목)	10/24(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00.66	1,930.06	1,915.28	1,936.97	1,931.65	1,925.69
	등락폭	-18.17	29.40	-14.78	21.69	-5.32	-5.96
	등락종목						
	상승(상한)	358(5)	557(10)	344(7)	562(6)	398(7)	258(3)
	하락(하한)	466(2)	256(1)	465(4)	259(2)	415(0)	565(3)
	ADR	76.48	80.33	76.62	81.44	83.39	78.43
	이격도						
	10 일	97.84	99.59	99.10	100.41	100.31	100.08
	20 일	95.67	97.44	97.03	98.38	98.36	98.33
	투자심리	20	30	30	30	30	3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362	345	406	399	373	392
	거래대금 (십억 원)	4,650	3,614	4,371	4,413	4,410	4,256
	코스닥지수	547.70	556.01	557.54	564.52	564.31	560.66
	등락폭	2.21	8.31	1.53	6.98	-0.21	-3.65
	등락종목						
	상승(상한)	358(13)	557(11)	344(8)	562(11)	398(9)	368(10)
	하락(하한)	466(3)	256(0)	465(5)	259(1)	415(5)	588(5)
	ADR	75.59	78.53	76.30	79.86	81.50	78.25
	이격도						
	10 일	98.89	100.64	101.07	102.31	102.32	101.57
	20 일	96.98	98.64	99.12	100.47	100.54	100.06
코스닥	투자심리	20	30	30	30	30	30
	거래량 (백만 주)	395	374	417	385	376	382
	거래대금 (십억 원)	2,640	2,304	2,549	2,657	2,480	2,382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189.1	1,012.6	1,027.6	263.5	141.6	270.9	55.6	22.1	274.021
	매도	2,072.6	1,093.4	1,063.7	210.8	135.0	293.8	99.0	23.6	301.4
	순매수	116.5	-80.8	-36.1	52.7	6.6	-22.9	-43.5	-1.5	-27.4
	10 월 누계	629.8	-2,701.1	1,869.3	794.3	156.8	848.5	68.0	-179.8	181.4
	14 년 누계	356.4	4,800.0	-3,928.7	-2,379.3	734.8	-2,206.9	-461.3	-2,179.6	2,563.5
코스닥	매수	2,146.8	108.1	131.6	30.0	15.1	45.3	8.8	5.6	26.9
	매도	2,123.9	138.3	128.4	30.9	13.8	29.9	18.9	2.4	32.4
	순매수	23.0	-30.2	3.3	-1.0	1.3	15.4	-10.1	3.2	-5.6
	10 월 누계	-133.9	-105.0	280.9	-20.8	55.2	195.1	65.0	10.1	-23.7
	14 년 누계	200.4	664.1	152.2	-29.4	199.5	-87.9	-15.4	-27.8	118.2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1,824	전기,전자	-27,761
화학	9,261	철강및금속	-10,979
운수창고	4,377	서비스업	-8,861
KODEX 200	18,987	삼성전자	-28,515
TIGER 200	11,685	현대제철	-8,989
대림산업	8,948	GS건설	-8,791
LG디스플레이	8,562	제일기획	-8,238
현대차2우B	5,430	현대건설	-5,856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13,973	건설업	-18,320
전기,전자	11,250	서비스업	-16,385
통신업	6,368	금융업	-8,964
한국전력	13,077	현대건설	-9,822
LG디스플레이	8,559	GS건설	-4,919
LG이노텍	4,483	SK하이닉스	-4,565
현대차2우B	3,451	KB금융	-4,455
삼성전자우	3,385	POSCO	-4,07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건설업	1,845	전기,전자	-2,245
철강및금속	935	화학	-1,504
보험	383	은행	-690
현대건설	1,741	LG화학	-3,183
KODEX 레버리지	1,512	LG디스플레이	-1,211
삼성SDI	981	LG이노텍	-1,186
기아차	954	삼성전자	-884
삼성화재	918	현대차2우B	-740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	14,421	전기,전자	-7,653
운수장비	10,061	화학	-7,130
전기가스업	6,268	철강및금속	-3,296
삼성화재	10,955	삼성전자	-6,845
현대차2우B	6,848	현대건설	-5,199
한국전력	6,821	LG이노텍	-4,152
ARIRANG 200	4,310	현대차	-3,491
대림산업	3,614	호텔신라	-3,198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40,430	건설업	-46,141
전기가스업	32,747	전기,전자	-30,030
보험	27,233	서비스업	-17,537
한국전력	34,452	KODEX 레버리지	-46,608
현대차2우B	16,997	현대건설	-28,006
LG디스플레이	16,984	삼성전자	-26,927
현대모비스	16,963	GS건설	-23,708
한화생명	11,785	LG이노텍	-17,365
삼성화재	10,603	제일기획	-14,156
SK텔레콤	10,522	LG화학	-11,356
KT&G	7,713	현대제철	-10,764
대림산업	7,421	LG전자	-10,350
삼성전자우	7,419	POSCO	-8,668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59,532	화학	-43,308
건설업	12,842	전기가스업	-42,686
은행	4,590	통신업	-16,938
삼성전자	55,870	한국전력	-44,347
코웨이	14,884	현대차2우B	-14,987
기아차	13,466	LG화학	-13,209
SK하이닉스	12,713	현대모비스	-12,820
현대차	12,273	KT&G	-12,351
현대건설	6,347	아모레퍼시픽	-12,265
현대제철	4,964	SK텔레콤	-12,211
GS건설	4,776	현대글로비스	-11,051
하나금융지주	4,766	삼성화재	-9,924
LG전자	4,686	KODEX 200	-9,871

주: 외국인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7,561	반도체	-3,505
디지털컨텐츠	4,662	통신서비스	-1,700
금융서비스	1,594	음식료,담배	-645
다음	7,415	서울반도체	-2,323
게임빌	3,785	SK브로드밴드	-1,270
로만손	2,414	우리산업	-1,220
씨젠	2,288	루멘스	-793
마크로젠	1,129	인바디	-739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1,549	디지털컨텐츠	-2,203
오락,문화	868	출판,매체복제	-1,214
화학	621	통신장비	-795
씨젠	3,361	셀바이오텍	-1,532
삼천당 제약	1,038	게임빌	-1,328
OCI머티리얼즈	892	에스엠	-1,111
매일유업	858	넥슨지티	-744
에스에프에이	816	다음	-70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1,461	의료,정밀기기	-551
제약	640	통신장비	-94
금속	331	소프트웨어	-78
KT뮤직	846	휴비츠	-376
컴투스	462	셀바이오텍	-133
대봉엘에스	425	인바디	-118
와이지-원	282	아이에이	-114
메가스터디	271	코나아이	-112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1,424	디지털컨텐츠	-1,316
인터넷	1,295	의료,정밀기기	-1,108
소프트웨어	1,104	운송장비,부품	-946
이오테크닉스	1,474	뷰웍스	-1,052
다음	1,295	조이맥스	-990
KH바텍	735	성우하이텍	-608
한글과컴퓨터	721	서린바이오	-589
피에스케이	672	차바이오텍	-513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4,844	반도체	-1,877
디지털컨텐츠	2,264	음식료,담배	-1,825
소프트웨어	1,950	통신서비스	-1,793
씨젠	5,385	서울반도체	-4,565
컴투스	3,936	조이맥스	-2,883
이오테크닉스	3,235	셀바이오텍	-2,784
게임빌	2,436	루멘스	-2,628
로만손	2,215	CJ E&M	-2,560
아프리카TV	1,686	뷰웍스	-1,814
마크로젠	1,609	에스엠	-1,680
에스에프에이	1,579	우리산업	-1,405
다음	1,496	SK브로드밴드	-1,309
파라다이스	1,281	하림	-1,248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11,448	반도체	-11,390
전문기술	1,373	화학	-5,760
통신서비스	772	제약	-3,168
다음	11,520	바이오랜드	-4,435
CJ E&M	3,152	이오테크닉스	-4,034
셀트리온	1,428	오스템임플란트	-2,125
바이넥스	1,216	피에스케이	-1,732
디지틀조선	1,141	파라다이스	-1,457
루트로닉	1,087	메디톡스	-1,389
SK브로드밴드	1,051	인터파크	-1,299
KT뮤직	711	원익IPS	-1,294
성우하이텍	651	네오위즈게임즈	-1,191
한국사이버결제	645	선데이토즈	-1,17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SK텔레콤	47 일	효성	11 일
삼성화재	29 일	영풍	10 일
NAVER	29 일	CJ대한통운	9 일
일성신약	23 일	LS	9 일
조선내화	17 일	LF	9 일
KT&G	16 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7 일
GS	16 일	대림산업	5 일
아모레퍼시픽	16 일	한진해운홀딩스	5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원익IPS	12 일	동양시멘트	10 일
이트레이드증권	10 일	KTH	8 일
다음	9 일	KCC건설	6 일
파라다이스	7 일	태광	5 일
OCI머티리얼즈	7 일	하이록코리아	3 일
KH바텍	7 일	태웅	3 일
모두투어	6 일	큐렉소	3 일
심텍	5 일	엘앤에프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LG생활건강	86,493	삼성전자	326,156
SK하이닉스	81,934	삼성SDI	36,859
현대차2우B	71,291	기아차	29,070
NAVER	57,441	KB금융	24,208
아모레퍼시픽	51,701	LG전자	21,880
KT&G	47,386	신한지주	20,843
삼성화재	43,447	GS건설	18,678
LG디스플레이	38,953	대림산업	17,267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다음	62,965	다음	18,736
게임빌	18,074	이오테크닉스	5,656
파라다이스	11,402	셀트리온	5,045
에스에프에이	9,608	KH바텍	3,918
KH바텍	8,831	게임빌	3,886
원익IPS	8,306	로엔	3,562
OCI머티리얼즈	6,565	산성엘앤에스	2,463
이오테크닉스	5,469	대한뉴팜	2,333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현대차	6,901	12,273	19,173
대림산업	7,421	4,530	11,952
KODEX 인버스	4,746	4,025	8,771
SK이노베이션	2,852	3,585	6,437
KB금융	3,189	2,220	5,409
한라홀딩스	2,761	952	3,712
한샘	1,417	1,001	2,417
삼성생명	1,878	451	2,329
두산중공업	1,836	330	2,166
하나투어	715	1,295	2,010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인터넷	1,438	11,448	12,885
사업지원	620	397	1,018
기타서비스	171	17	188
다음	1,496	11,520	13,016
씨젠	5,385	365	5,750
마크로젠	1,609	582	2,191
KH바텍	900	480	1,381
KT뮤직	447	711	1,158
로엔	140	604	744
알투스포츠	272	395	667
키이스트	161	419	580
파트론	277	244	522
효성오앤비	354	83	43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KINDEX 레버리지	25 일	SK텔레콤	33 일
TREX 200	14 일	KPX케미칼	25 일
TIGER 그린	12 일	삼성화재	24 일
하이트진로홀딩스	11 일	KT&G	16 일
효성	11 일	SK케미칼	15 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9 일	GS	13 일
삼성전자	9 일	한라비스테온공조	12 일
삼성중공업	9 일	엔씨소프트	12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성광벤드	12 일	아미노로지스	14 일
위메이드	10 일	에스엠	8 일
에이테크솔루션	8 일	OCI머티리얼즈	7 일
루멘스	6 일	서부T&D	6 일
메디포스트	6 일	에스에프에이	5 일
웹젠	5 일	메가스터디	5 일
인터플렉스	4 일	모두투어	5 일
CJ E&M	4 일	우리이티아이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LG화학	-186,051	LG생활건강	-83,714
삼성전자	-171,613	현대차2우B	-76,321
KODEX 레버리지	-84,120	한국전력	-75,975
현대건설	-44,086	아모레퍼시픽	-56,583
GS건설	-42,602	KT&G	-55,314
LG전자	-29,843	SK텔레콤	-53,019
기아차	-26,510	삼성화재	-45,023
신한지주	-23,874	NAVER	-38,037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 E&M	-12,797	CJ오쇼핑	-9,816
서울반도체	-12,396	에스엠	-6,646
선데이토즈	-8,133	OCI머티리얼즈	-6,168
위메이드	-5,581	한글과컴퓨터	-4,461
차이나그레이트	-5,129	원익IPS	-4,456
셀바이오텍	-4,969	인터파크	-3,655
루멘스	-3,185	오스템임플란트	-3,600
셀트리온	-3,119	피에스케이	-3,354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5,322	-43,308	-48,630
서비스업	-17,537	-3,875	-21,412
의약품	-1,009	-3,455	-4,465
KODEX 레버리지	-46,608	-1,338	-47,946
LG화학	-11,356	-13,209	-24,565
KODEX 200	-2,660	-9,871	-12,531
호텔신라	-6,916	-1,775	-8,691
신한지주	-4,261	-1,630	-5,891
SK	-4,984	-676	-5,661
엔씨소프트	-4,404	-656	-5,059
KCC	-4,296	-318	-4,614
삼성중공업	-2,858	-1,281	-4,139
삼립식품	-2,668	-1,072	-3,739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1,877	-11,390	-13,267
화학	-1,436	-5,760	-7,197
의료,정밀기기	-1,044	-2,344	-3,388
셀바이오텍	-2,784	-916	-3,699
루멘스	-2,628	-1,048	-3,676
실리콘웍스	-1,119	-1,087	-2,207
에스엠	-1,680	-361	-2,041
뷰웍스	-1,814	-219	-2,033
에이블씨엔씨	-995	-834	-1,829
토비스	-460	-974	-1,434
덕산하이메탈	-1,194	-229	-1,423
코나아이	-11	-1,012	-1,023
나이스정보통신	-490	-320	-81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아모레퍼시픽	8	20,774
LG화학	72	13,344
현대중공업	115	11,522
KODEX 200	463	11,238
호텔신라	94	10,136
LG디스플레이	211	7,043
롯데케미칼	49	6,091
LG생활건강	10	5,94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넥슨지티	101	1,935
에스엠	42	1,290
서울반도체	59	1,242
KG이니시스	77	1,178
선데이토즈	51	1,067
한글과컴퓨터	38	904
코오롱생명과학	16	797
한국사이버결제	30	771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781	5,230,439
POSCO	6,019	1,935,240
SK하이닉스	24,030	1,093,357
현대차	5,513	942,688
LG전자	13,227	847,858
신한지주	17,233	823,752
NAVER	1,021	810,942
KODEX 200	32,683	795,67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7,997	748,659
CJ E&M	894	551,342
다음	3,052	475,573
파라다이스	8,051	275,339
위메이드	1,225	246,144
서울반도체	10,331	215,410
컴투스	919	167,961
차바이오텍	5,460	78,904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8,793	금융업	-2,758
운수장비	4,659	유통업	-1,978
화학	1,993	증권	-1,426
팬오션	7,356	우리금융	-2,137
LG디스플레이	1,483	SK네트웍스	-1,974
파미셀	1,216	SK하이닉스	-1,816
강원랜드	1,197	IHQ	-1,689
삼성생명	1,113	KODEX 200	-1,511
기아차	1,007	GKL	-1,187
삼성중공업	911	웅진씽크빅	-997
삼성테크윈	743	현대증권	-825
POSCO	700	LG유플러스	-702
쌍용차	689	유진투자증권	-59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통신서비스	1,090	화학	-2,884
운송장비,부품	887	오락,문화	-897
섬유,의류	840	미분류	-819
SK브로드밴드	1,186	티케이케미칼	-2,848
성우하이텍	1,032	파라다이스	-940
서울반도체	921	에스앤씨엔진그룹	-788
MPK	487	루멘스	-367
지엔코	474	하이셀	-291
성광밴드	350	대아티아이	-269
신성델타테크	320	리노스	-216
다음	264	유니테스트	-213
데코앤이	258	오공	-210
에스에프에이	185	한국정보통신	-186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20(월)	10/21(화)	10/22(수)	10/23(목)	10/24(금)
외국인	4,800.0	-2,701.1	-274.1	20.6	-62.9	43.8	-194.8	-80.8
기관계	-3,928.7	1,869.3	217.9	117.5	-55.2	68.4	123.1	-36.1
(투신)	-2,206.9	848.5	86.9	8.3	-7.1	72.0	36.7	-22.9
(연기금)	3,951.1	81.9	19.0	23.6	0.1	-19.2	41.9	-27.4
(은행)	-2,179.6	-179.8	-44.1	-4.1	-11.3	-13.9	-13.3	-1.5
(보험)	734.8	156.8	44.7	29.6	-15.2	20.0	3.9	6.6
개인	356.4	629.8	35.6	-154.4	116.9	-110.3	66.9	116.5
기타	-1,227.7	202.0	20.6	16.3	1.1	-1.9	4.8	0.4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10/17(금)	10/20(월)	10/21(화)	10/22(수)	10/23(목)
KOSPI	1,825.7	1,997.1	2,011.3	1,900.7	1,930.1	1,915.3	1,937.0	1,931.7
고객예탁금	17,680.2	18,014.3	14,211.8	14,723.1	14,634.1	15,479.3	14,873.3	14,822.0
(증감액)	1,996.5	3,611.7	334.1	-1,314.0	-89.0	845.2	-606.0	-51.3
(회전율)	34.2	26.7	29.9	49.5	40.4	44.7	47.5	46.5
실질예탁금 증감	-3,314.4	3,791.6	-13,274.3	-1,200.8	-181.8	855.1	-743.9	-22.8
신용잔고	44,763.0	39,124.0	41,828.0	5,181.5	5,163.9	5,178.9	5,153.3	5,157.1
미수금	1,877.0	1,241.0	929.0	119.3	122.3	131.0	124.7	159.5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0/17(금)	10/20(월)	10/21(화)	10/22(수)	10/23(목)
전체 주식형	77,799	-6,311	1,614	161	101	191	-46	92
(ex. ETF)		-4,460	1,150	122	26	43	71	38
국내 주식형	60,719	-4,091	1,718	170	112	219	-38	101
(ex. ETF)		-2,239	1,254	131	36	71	79	48
해외 주식형	17,080	-2,220	-104	-10	-10	-28	-8	-10
(ex. ETF)		-2,221	-104	-10	-10	-28	-8	-10
주식 혼합형	10,247	188	97	-2	11	12	-6	8
채권 혼합형	26,068	2,114	710	63	20	215	99	67
채권형	67,405	6,846	2,701	260	221	26	94	47
MMF	91,892	24,405	6,822	1,524	83	-1,843	813	-94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20(월)	10/21(화)	10/22(수)	10/23(목)	10/24(금)
한 국	5,325	-2,125	382	19	-60	42	-184	336
대 만	8,625	-1,448	228	83	-79	177	49	-196
인 도	13,269	-544	195	251	19	-	-	-
인도네시아	3,761	-471	-74	63	-7	4	0	-29
태 국	-418	-331	-105	15	-27	3	-	-
남아공	3,064	482	-97	-5	-125	84	-42	-
필리핀	781	-542	-9	-3	-9	0	0	3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3년	10/17(금)	10/20(월)	10/21(화)	10/22(수)	10/23(목)	10/24(금)
회사채 (AA-)	3.29	2.59	2.61	2.59	2.58	2.57	2.55
회사채 (BBB-)	8.98	8.34	8.36	8.34	8.33	8.32	8.31
국고채 (3년)	2.86	2.24	2.26	2.24	2.23	2.22	2.21
국고채 (5년)	3.23	2.42	2.45	2.42	2.41	2.39	2.37
국고채 (10년)	3.58	2.73	2.79	2.76	2.75	2.73	2.70
미 국채 (10년)	2.97	2.19	2.19	2.22	2.21	2.27	-
일 국채 (10년)	0.74	0.48	0.49	0.48	0.48	0.48	-
원/달러	1,055.40	1,065.90	1,059.60	1,054.70	1,051.40	1,056.10	1,057.50
원/엔	1,003.99	999.44	991.02	988.38	980.60	977.06	978.36
엔/달러	105.12	106.65	106.92	106.71	107.22	108.09	108.09
달러/유로	1.38	1.28	1.28	1.27	1.26	1.26	1.26
DDR3 1Gb (1333MHz)	1.37	1.42	1.42	1.42	1.42	1.42	-
DDR3 2Gb (1333MHz)	2.54	2.24	2.24	2.24	2.24	2.24	-
NAND Flash 16Gb (MLC)	3.43	2.40	2.40	2.40	2.40	2.40	-
CRB 지수	280.17	273.29	271.78	273.66	271.00	273.09	-
LME 지수	3,182.9	3,064.9	3,036.9	3,071.1	3,077.8	3,082.5	-
BDI	2,277	944	973	1,090	1,136	1,155	-
유가 (WTI, 달러/배럴)	98.47	82.75	81.71	82.81	80.52	82.09	-
금 (달러/온스)	1,189.10	1,234.25	1,244.50	1,250.25	1,243.75	1,232.7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0	21	22	23	24
日> 8월 최종 선행지수 (104.4, n/a, 104.0)	中> 3Q GDP 전년동기대비 (7.3%, 7.2%, 7.5%) 9월 광공업생산 YoY (8.0%, 7.5%, 6.9%) 9월 소매판매 YoY (11.6%, 11.7%, 11.9%) 美> 9월 기준주택매매 (517만, 510만, 505만)	日> 9월 무역수지 (억 엔) (-9583, -7800, -9497) 美> 9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1.7%, 1.7%, 1.7%)	中> 10월 예비 HSBC 제조업 PMI (50.4, 50.2, 50.2) 日> 10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52.8, 51.7, 51.7) 美> 9월 선행지수 (0.8%, 0.7%, 0.0%) 유럽> 10월 예비 소비자대지수 (-11.1, -12.0, -11.4)	韓> 3Q 예비 GDP 전년동기대비 (3.2%, 3.3%, 3.5%) 美> 9월 신규주택매매 (n/a, 47.0만, 50.4만)
27	28	29	30	31
독일> 9월 소매판매 MoM(~31일) (n/a, n/a, 1.5%) 美> 9월 미결제주택매매 MoM (n/a, 1.0%, -1.0%) 실적발표 美 머크, 암젠, 트위터 韓 S-Oil, LG유플러스	美> 9월 내구재 주문 (n/a, 0.4%, -18.4%) 10월 소비자대지수 (n/a, 87.2, 86.0) 유럽> EC 경제 전망 발표 실적발표 美 페이스북, 일렉트로닉 아츠, T-모바일, 코닝, 듀폰, 노블 에너지, 화이자, 월풀, 애너다코석유, US스틸, 버텍스제약 韓 두산, SK, SK이노베이션	韓> 9월 경상수지 (n/a, n/a, 72.74억불) 日> 9월 예비 광공업생산 MoM (n/a, 2.1%, -1.9%) 美> FOMC 금리결정 10월 연준 QE3 속도 (n/a, 0, 150억불) 실적발표 美 길리어드, 메리엇, 허쉬, 칼라일, 서던, 메트라이프, 맥쿼리, 드림웍스, 비자, 굿이어타이어 韓 SK텔레콤, 한국타이어, OCI, LG전자, LG이노텍, 신한금융지주	韓> 9월 광공업생산 MoM (n/a, 2.2%, -3.8%) 美> 엘런 연준의장 연설 3Q 예비 GDP 연간화 QoQ (n/a, 3.0%, 4.6%) 유럽> 10월 최종 소비자대지수 (n/a, n/a, -11.1) 실적발표 美 크래프트, 켈로그, 스타벅스, MGM, 마스터카드, 링크드인, 익스페디아, 그루폰 韓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한진해운, LG상사, SK네트웍스, 기업은행, 우리금융, 포스코, 네이버	日> 일본중앙은행 본원통화목표 (n/a, n/a, 270조엔) 10월 소비자대지수 YoY (n/a, 3.3%, 3.3%) 美> 10월 시카고 구매지수 (n/a, 61.0, 60.5) 10월 최종 미시간대 기대지수 (n/a, 86.4, 86.4) 유럽> 10월 예상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n/a, n/a) 실적발표 美 웨스턴유니온, 엑스모빌, 매디슨스퀘어가든, 힐튼, 위즈덤트리 韓 삼성카드,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SK브로드밴드, KT, 현대제철
11/3	4	5	6	7
韓> 10월 수출 (1일) 10월 수입 (1일) 美> 10월 ISM 제조업지수 유럽> 10월 마켓 제조업 PMI 中> 10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10월 HSBC 제조업 PMI	韓>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美> 9월 무역수지 9월 제조업수주 유럽> EC 경제전망 발표	美> 10월 ADP 취업자 변동 유럽> 9월 소매판매 MoM	유럽> ECB 금리 결정 독일> 9월 공장주주 MoM	美> 10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10월 실업률 독일> 9월 산업생산 SA MoM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